기획 연재

孝와 烈에 관한 瞑想 ⑦④

權 五 焞
本紙편집인

227. 왕양피험王陽避險

한漢나라의 왕양王陽이 익주益州의 장사長史가 되어 구절양장九折羊腸의 비탈길에 이르러서는 탄식하기를 ‘ 내가 선인先人(돌아간 아버지)의 유체遺體(부모가 끼쳐 남긴 몸으로서의 자신)를 가지고 어찌 이같이 험한 비탈에서 자꾸 수레를 타겠느냐 ’ 하고는 마침내 수레를 돌려 급히 돌아갔다.

유효지시維孝之始 : 아, 효의 시작은
신발물상身髮勿傷 : 신체발부身體髮膚를 손상 않는 것
천금지자千金之子 : 천금같은 자식이란
좌불수당坐不垂堂 : 마루끝에 앉지 않는 법
앙래준판 갯峻坂 : 앙래의 험준한 비탈길이
험과양장險過羊腸 : 양의 창자같은 위태로움을 지나야 하네
회차거직廻車去職 : 수레를 돌려 관직을 버리니
아모왕양我慕王陽 : 우리가 왕양을 흠모하도다

곡례曲禮(몸가짐과 자질구레한 행사에 관한 예를 다룬 예기禮記의 편명篇名)에 이르기를 ‘ 효성스런 자식이 깊은 물에 임하지 않고 위태로운 곳에 오르지 않는다 ’고 한 것은 어버이를 욕되게 하기를 두려워해서이다. 왕양이 그 선인의 유체로서 자꾸 험준한 비탈길을 수레로 달리기를 원치 아니하여 급히 사직하고 돌아간 것은 진실로 예기에서 이른 바와 합치되는 것이다. 또한 신체발부를 손상치 아니하고 마루끝에 앉지 아니하는 것은 옛 성현이 훈계한 바의 절실함인 것이다. 왕양이 험준한 곳을 만나 반드시 피해 돌아가고자 하였으니 그가 자기 몸을 지니고자 한 것이 필히 전전긍긍하도록 하는 것을 평상으로 하여 비록 발을 한번 내딛는 것이 양의 창자와 같아 구절양장九折羊腸이라 표현하는 곳이다. 왕양이라는 사람이 조정의 명으로 관직을 받아 부임하다가 길이 험해서 부모에게서 받은 제 몸이 다칠까봐 그만두고 돌아갔다는 것은 황당한 웃음거리이다. 이처럼 어리석은 이야기를 효경의 첫 구절을 이행한 것으로 미화하여 세상사람이 흠모하고 본받으라고 한 것은 극단의 모순된 논리의 비약을 통하여 그 취지를 드러내 보고자 한 것으로서 쓴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므로 이런 일화를 읽을 때는 이를 감안하면서 과장된 불합치 이면의 의취를 간파해야 한다.

228. 대량여명戴良驢鳴

대량戴良의 자가 숙란叔鸞인데 그 어머니가 나귀의 우는 소리를 좋아하였다. 대량이 항상 공부를 하여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데 어버이를 그 낯빛이 좋고 낮음에 따라 섬겨야 하므로 마땅히 좋아하는 바를 좇아야지 어찌 타인이 나의 괴이한 모습을 보고 비웃는 것을 걱정할 것이냐면서 ‘ 액액하고 나귀가 우는 소리가 이상하지만 내가 그 소리를 흉내내는 것은 다만 아이같이 희롱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 이라 하였다.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그 낯빛을 살펴서 하기가 정녕 어려운 법이지만, 내 어버이가 좋아하는 바를 마땅히 좇음에 있어서야 어찌 타인의 비웃는 바라 하여 꺼릴 것인가. 그런 고로 비록 나귀가 우는 소리라 할지라도 또한 흉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제목 대량여명戴良驢鳴은 대량이 나귀우는 소리를 흉내냈다는 뜻이다. 대량은 후한後漢 때 사람인데 그의 형 대백란戴伯鸞과 함께 효성스러워 그 어머니가 죽자 묘소 곁에 여막을 치고 거처하면서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예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특히 대량은 기이한 논의를 좋아하고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벼슬을 내려도 나가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후한서後漢書에 올라 있다. 이미 학문이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 내가 천하를 독보獨步하는데 누가 나와 짝할 것인가 ’ 하였다. 거듭하여 사공부司空府의 벼슬을 내리고 불러도 나가지 않자 주군州郡의 관아에서 명을 받아 관직에 나갈 것을 강박했다. 마침내 처자를 거느리고 강하江夏의 산중으로 건너가 숨어 우유優遊하면서 벼슬하지 않았다. 다섯 딸을 시집보내는데 오직 어진 자만을 골라 사위삼으면서 거친 치마와 베옷에 대오리상자와 나막신을 신겨 보냈다. 그 다섯 딸이 능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준수하여 모두 은자隱者의 풍모를 지니고 살았고 대량도 천수를 다하였다.

229. 포영거처鮑永去妻

한漢나라의 포영鮑永은 자가 군장君長인데 그 아내가 어머니 앞에서 개를 소리쳐 욕하자 아예 내쫓아 버렸다.

취처위친娶妻爲親 : 아내를 얻음은 어버이를 위한 것이지
비위아야非爲我也 :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질구어전叱狗於前 : 어버이 앞에서 개를 꾸짖음은
이불가야已不可也 : 이미 불가한 일이로다
유이완지□而玩之 : 친압하여 어루만짐은
과장대야過將大也 : 허물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
책이출치責而出之 : 책망하여 내쫓은 것은
영가가야令可嫁也 : 다시 시집가게 함이로다

기記(경서의 주해)에서 말하기를 ‘ 존장의 앞에서는 개를 꾸짖지 못한다 ’ 했는데 이는 예의 작은 절목이다. 지금 포영의 아내가 그 어머니 앞에서 개를 질책한 것은 예를 모르고 그 작은 절목을 범한 것이니 이는 마땅히 용서해야 될 것같은데 길이 내쫓은 것은 그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무거워서이다. 또한 예에 따라 그 아내를 내쫓으면서도 그 죄를 밝혀 말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용납되어 개가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서이다. 그러므로 그 아내의 과실이 커지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작은 절목을 가지고 책망해 내보냄으로써 그가 남에게 다시 시집갈 수 있게 한 것 또한 충후忠厚한 뜻에서인 것이다.

제목 포영거처鮑永去妻는 포영이 아내를 내쫓았다는 뜻이다. 포영은 후한後漢 초기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계모를 지극한 효도로 섬겼다. 처음에 군郡의 공조功曹 벼슬에 나갔다가 전한말 회양와淮陽王 경시更始 연간에 승진하여 상서복야尙書僕射가 되고 징명으로 행대장군사行大將軍事가 되어 하동河東과 병주幷州의 지절持節을 받들어 다스렸으며 삭부朔部를 안집해서는 중양후中陽侯에 봉해졌다. 후한의 광무제光武帝가 즉위해서는 간양대부諫지大夫를 배수하고 거듭 공이 있어 관내후關內侯가 되었으며 사례교위司隸校尉로 전직해서는 황자 조왕趙王 유량劉良의 잘못한 일을 탄핵하니 조정이 숙연하였다. 이윽고 동해상東海相을 배수하고 연주목兗州牧으로 벼슬을 끝냈다. 그 사적이 후한서後漢書에 자세히 올라 있는 인물이다.

옛 예법에서는 존장자 앞에서 재하자를 꾸짖지 못했다. 이는 지금도 어느 경우는 동양에서 통하는 예법이다. 특히나 부모 앞에서 제 자식이라고 꾸짖고 때리면 이는 패륜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절대 금물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포영과 같이 학문과 작위가 높은 인물이 작은 실수를 빌미로 자기와 일신인 항려伉儷를 내쫓은 것은 비정하고도 반인륜적인 처사이다. 또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맹목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그럼에도 이같이 모순된 일화가 효행록에 선입되어 고전화한 데에는 존자 앞에서 재하자를 질타하지 못하는 예도의 의의를 극대화하려는 뜻이었음을 간파하고 이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230. 등유기자鄧攸棄子

진晉나라 우복야右僕射 등유鄧攸는 자가 백도伯道인데 영가永嘉(진晉 효회제孝懷帝 사마치司馬熾 연호, 307~313) 말년에 석륵石勒의 군에 함몰되자 우마牛馬에 처자를 함께 태우고 도주하는 중에 도적을 만나서는 그 우마를 뺏기는 바 되었다. 도보로 재촉해 걸으니 어린 자기 자식과 아우의 자식 등수鄧綏 둘 다를 온전히 더불을 수가 없음을 헤아리고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 내 아우가 일찍 죽어 오직 자식 하나가 혈육으로 남았으니 이치로 이를 끊어져 그치게 할 수가 없소. 마땅히 우리 자식을 버릴 수 밖에 없겠소. 행여나 살아남는다면 우리에게는 또한 자식이 생길 것이오 ’ 하였다. 이에 그 아내가 울면서 이를 좇아 자기 자식을 버렸는데 이후로 그 몸에서 끝내 자식이 생기지 아니하니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의롭고도 애닯게 여겨 이야기하기를 ‘ 하늘의 도리가 무지無知하여 백도伯道에게 아들이 없게 하니 그 아우의 자식 수綏가 유攸의 상에 3년 복을 입었다 ’ 하였다.

거호우적주공지혜去胡遇賊走恐遲兮 : 오랑캐를 피하다 적을 만나 걸음아 살려라 도주함에
휴기고질기기아혜携其孤姪棄己兒兮 : 그 고아된 조카는 데리고 제 자식은 버렸는데
후경무사천난지혜後竟無嗣天難知兮 : 뒤에 필경은 후사가 없으니 하늘의 도리 모르겠도다
복상삼년질역의혜服喪三年姪亦宜兮 : 3년을 복상하니 그 조카 또한 의당하였구나

백도가 자식을 버리고 그 조카를 온전히 한 것은 의리로서 지극한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후사가 없게 되어 그 선행에 대한 보응報應이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은 고로 논하는 자가 천도天道가 무지한 것으로 돌린 것이다. 무릇 선악에 대한 보응이 비슷하게 발현되는 것이 하늘의 상도常道이다. 그 상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 상도가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알기가 어려운 일이다. 지사志士와 인인仁人의 성효誠孝가 지극하면 하늘을 감동시키고 사람과 사물을 감화하여 이르기 어려운 곳에 이르는 것을 역력히 계고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백도에게 그 후사를 내리지 않은 것은 실로 알기 어려운 노릇이다. 그러나 아이를 버린 일은 전에도 곽거郭巨와 노고魯姑의 일에서 있었는데 곽거는 어머니를 위해서이고 노고는 전남편을 위해서이니 둘다 반드시 하늘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여 한 일은 아니었다. 지금 백도가 아우를 위해서 한 것은 곽거가 어머니를 위해 한 것에 비해 보면 경중이 서로 다르다. 부부가 더불어 갖추어져 있었으니 노고가 홀몸으로 도주하던 것과는 경우가 같지 아니하여 두 아이를 각기 다 온전히 데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구태여 스스로 하늘을 핑계하여 갑자기 아이를 버렸으니 이는 대륜大倫을 변처變處한 바이자 선행이라 하기에는 미

15면으로 계속